



■ 삼성화재-현대캐피탈 라이벌 경쟁 시선 집중

용병들 팡팡쇼 코트가 뜨겁다

‘백구의 향연’ 프로배구 2006~2007 V-리그에서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무적 함대’ 삼성화재와 ‘장신 군단’ 현대캐피탈의 라이벌 대결이 배구 팬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1995년 팀 창단 후 겨울리그 8년 연속 우승에 이어 프로 원년이던 2004~2005년 시즌까지 제패해 겨울리그 9연패 신화를 창조하며 난공불락의 아성을 구축했던 최강팀이었다.

이 기간 ‘갈색 폭격기’ 신진식과 ‘월드 스타’ 김세진이 막강 좌우 쌍포를 이뤄 77연승 대기록을 수립했고, 이들이 주축이 돼 출전했던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삼성의 전성시대인 현대캐피탈의 놀라운 성장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03년 말 ‘컴퓨터 세터’ 출신의 김호철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현대캐피탈은 2004년 V-투어에서 고작 상대전적 1승(10패)으로 삼성에 철저하게 눌렸지만 이듬해 2004~2005시즌 정규리그에서 2승2패로 균형을 맞추고 챔피언결정전에서 아깝게 졌지만 삼성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

현대는 지난 시즌 마침내 삼성의 철옹성을 깨고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결정전까지 우승, 통합우승 꿈을 이뤘고 지난 9월 한국배구연맹(KOVO)컵에서도 ‘특급 용병’ 손 루니가 뼈저리게

삼성 ‘괴물’ 레안드로 앞세워 기선 제압

루니 등 장신군단 현대 “이제 시작일 뿐”



삼성 레안드로



현대 루니

도 삼성을 3-2로 꺾는 등 5전전승 우승으로 ‘그랜드슬램’(정규리그·챔피언결정전·KOVO컵)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에도 현대가 독주하는 ‘1강3중’ 구도 예상됐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사정은 달랐다.

라이트 김세진의 은퇴와 주전 센터 신진호, ‘물도사’ 석진욱의 부상으로 전력 누수가 예상됐던 삼성은 ‘괴물 용병’ 레안드로 다 실바가 24일 현대와 개막전에서 역대 한 경기 최다인 49점을 쏟아내는 무서운 공격력을 뽐내며 현대전 3-2 승리를 주도했다. 현대 우위의 예상을 깬 삼성의 기본 좋은 첫 승리였다.

레안드로와 네트를 사이에 둔 현대 용병 루니는 22득점에 그쳐 지난 시즌 최고 용병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반면 현대는 최고의 높이와 빠른 스피드가 강점이지만 백승현의 군 입대와 장영기의 어깨 수술로 레프트는 루니와 송인석 두 명밖에 없고 아시안게임 대표였던 6인방은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라이트 박철우 기량이 좋아지고 아시안게임 트리오가 버틴 센터진은 여전히 최강이다.

삼성 기선 제압 승리로 불 붙은 현대와 라이벌 대결은 시즌 내내 코트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핸드볼 스타 강재원 감독

다이오스틸팀 우승 견인

일본 핸드볼종합선수권

1980년대 한국 남자 핸드볼 최고 스타 강재원(42) 감독이 이끄는 일본 남자 실업핸드볼 다이오스틸이 일본 종합선수권대회에서 우승했다.

다이오스틸은 24일 열린 대회 결승에서 대부분이 일본 대표 주전선수로 구성된 오자키 전기들 39-34, 5점 차로 누르고 우승컵

을 들어올렸다고 강 감독이 25일 알려졌다.

센터백 백원철(29)이 16골, 라이트백 이재우(28)는 7골을 폭발시키는 등 한국 선수 2명이 전체 39골의 60%에 가까운 23골을 합작하며 우승의 일등공신이 됐다.

지난 7월 실업핸드볼선수권대회를 2연패했던 다이오스틸은 이로써 2006~2007 시즌 대회 우승컵 2개를 독차지하며 일본 실업핸드볼 최강자 자리를 굳혔다.

다이오스틸은 내년 3월 말에 끝나는 실업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우승하면 올 시즌 일본 실업 핸드볼 무대 전관왕을 차지하게 된다.



26일(화)

▲네덜란드리그<페예노르트-PSV에인트호벤>(20:20·SBS스포츠)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시-레딩>(22:00·MBC ESPN)

27일(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맨체스터유나이티드-위건>(00:00·MBC ESPN)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25일 원주에서 열린 프로농구 원주 동부와 울산 모비스 경기에서 동부 김주성이 울산 모비스의 수비를 피해 슛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모비스가 90-8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최병재·손연희 광주시장배 볼링 남녀 우승

손연희(23·광주 벨인퍼컴·사진)가 제8회 광주시장배 볼링대회에서 여자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손연희는 지난 24일 광주시 북구 텐핀볼링장에서 열린 여자부 결승전에서 6게임 토탈 1,320점을 기록해 2위를 13점차로 누르고 우승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졸업예정인 손연희는 대학랭킹 1위로 국가대표 상비군을 지냈으며 광주벨인퍼컴에 입단해 2007년부터 광주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된다. 2위는 1,307점을 기록한 한혜영(43·텐핀볼링클럽)씨가 차지했다.

남자부 개인전에서는 최병재(32·광주시



체육회)가 1,302점으로 우승했으며 한재호(23·광주시 체육회)가 1,290점으로 2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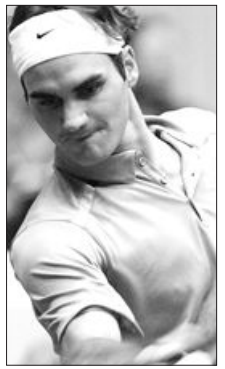
이어서 열린 3인조전에서는 박성근(41)·홍수연(23·광주 벨인퍼컴)·엄기원(37·텐핀볼링장)조가 4게임 합계 2,705점으로 2위를 100점차로 따돌리며 우승했다.

정진호(34·텐핀볼링장)·이동원(40·텐핀볼링장)·표기정(55·텐핀볼링장)조는 4게임 합계 2천605점을 기록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페더러 ‘올 최고 선수’

러시아 타스통신 선정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사진)가 러시아 이타르 타스 통신이 선정한 ‘2006년 최고 선수’에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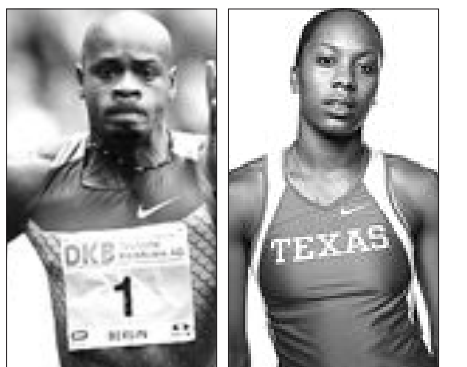
타스 통신은 25일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스포츠 전 종목에 걸쳐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더러가 올해의 세계 최고 선수에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페더러는 158점을 얻어 국제축구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 파비오 칸나바로(레알 마드리드·84점)를 제치고 2006년 스포츠를 빛낸 ‘별종의 별’로 인정 받았다.

페더러는 올해 클레이코트에서 벌어진 프랑스오픈만 경쟁자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에게 내줬을 뿐 호주오픈, 윙블던, US오픈 등 3개 메이저대회를 독식하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2년째 구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월·리처즈

올해의 육상선수

‘트랙 & 필드 뉴스매거진’ 선정

육상 남자 100m 세계기록 보유자 아사파 파월(23·자메이카·왼쪽)과 여자 400m 불패 행진을 벌인 산야 리처즈(21·미국·오른쪽)가 육상 전문잡지 ‘트랙 앤드 필드 뉴스 매거진’이 선정한 2006 올해의 육상선수로 뽑혔다.

25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월은 올해 세계 타이 기록(9초77)을 세우고 무려 12차례나 9초대 기록을 내는 등 남자 단거리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 110m 허들 세계기록(12초88)을 작성한 ‘황색탄환’ 류시양(중국) 등을 제치고 상을 받았다.

자메이카 태생인 리처즈는 국제육상경기 연맹(IAAF) 월드컵에서 48초70으로 우승하는 등 올해 된 400m 레이스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아 장대높이뛰기 신기록 행진에 주춤한 ‘미녀새’ 엘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등을 제치고 최고의 여자 육상선수로 선정됐다.

G 기탄출판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 한문장씩!



▶ 구입문의 (02)586-1007

대상: 1월~5월~10월
부록: CD 2장(2006년 1월, 5월)
정가: 2,000원

아이의 영어실력을 키우고 싶은 영어왕초보 엄마들께 권해 드립니다

‘속재하고, 놀아라!’를 영어로 퀘리고 할까요?
왕어민의 유망한 영어보다 매일 엄마와의 간단한 영어대화가 아이의 영어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줍니다.
냉장고, 화장실, 책상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아이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 보세요.
엄마가 읽을 때면, 아이는 영어가 생활이 됩니다.

※ 전국 서점과 기탄출판사에서 구입가능

냉장고에 붙여 놓고
엄마와 함께 읽는다

365일 냉장고 영어 kids



“지금 ‘기탄화학’이 도세요, 엄마선생님이 되세요!”
기탄출판사의 무료 회원 가입하세요! 5? 무료한 교육정보와 학습자료, 강제 영어와 공부법 등 365일 영어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후원자~ 계속 가세요!

gitan.co.kr

◆ 일간 행복지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를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정가 2,000원)